

예비신자 혼인관련 질문지 해설

(봉사자용)

1. 【목적】

본 질문지는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예비신자들이 혼인과 관련된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가 있다면 이에 필요한 교회법적·사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 【시기】

본 질문지는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된 후 1개월 정도 지난 때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공지】

봉사자는 본 질문지를 작성하기 1~2주 전에 모든 예비신자들에게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합니다. 이때 제출할 혼인관계증명서가 혼인 관계 일부를 생략한 채 증명하는 ‘일부’가 아닌 반드시 전체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4. 【질문지와 봉투 준비】

봉사자는 필요한 질문지, 펜, 질문지를 모아 담을 봉투, 밀봉용 테이프나 풀 등을 준비합니다.

5. 【질문지 작성과 제출 취지 설명】

본 질문지를 작성할 때 사목자가 직접 예비신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해주고 작성합니다. 봉사자는 예비신자들이 혼인과 관계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혀올 때 직접 사목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본 질문지의 작성 전에 사목자는 예비신자들에게 질문지의 필요성과 취지,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천주교회는 혼인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고,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혼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데 장애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세례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법적·사목적 도움을 드리고자 본 질문지를

제출받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 면담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본 질문지를 작성해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질문지는 혼인 관련 장애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폐기될 것입니다.”

6. 【질문지 내용】

- 혼인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예비신자가 직접 본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 ‘본인의 혼인상태’는 예비신자 본인의 혼인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에 체크합니다.
- 미혼 또는 사별인 경우 【1】문항 체크 후에 【5】문항으로 넘어갑니다.

7. 【봉투 밀봉 후 제출】

본 질문지 작성이 끝나면 예비신자들은 질문지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동봉하여 봉투에 담고 밀봉하여 봉사자에게 제출하고 봉사자는 사목자에게 전달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

봉사자는 본 질문이나 교리교육 또는 봉사과정에서 알게 된 예비신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이유로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비신자의 신앙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당의 사목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본당 사제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